

**110 학년도 1 학기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아시아 공동체: 동아시아학 구축과 변모」 시리즈 강좌(7)**  
**주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중국문화대학교 110 학년도 Eurasia 재단 국제 세미나 제 7 회 강연에서는 본교 한국어문학과 김선효(金善孝) 교수를 초청하여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한류는 대만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으며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의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김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한국어의 역사와 한국 어학의 특징을 간단하게 소개하였다. 김 교수에게 「일본어」는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라고 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국어의 문법 구조에서 볼 때 일본어와 한국어 모두 SOV 구조이며 모두 표음문자이다. 그에 반해 중국어는 표의문자이다. 한국어와 일본어 모두 같은 SOV 구조이며 표음문자이기 때문에 일본어학과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비교적 쉽고 반대로 한국어학과 학생들도 일본어를 쉽게 배울 수 있다.

### 한국어의 역사

한자 유입 시기는 서기 108 년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며, 한국은 오랫동안 한자를 사용하여 소통하였다. 조선 시대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통해 학자들과 함께 창제한 한글을 반포하였다. 한글이 창제되기 전 한국 사람들은 모두 문자로 한자를 사용하였다. 현대 한국어에는 한자의 사용이 보이지 않으며 한글(Hangu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이러한 한국어 표기는 세종대왕과 집현전(集賢殿)의 학자들이 함께 창제한 것이다.

### 한국어의 문자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하는 문자인 한글(Hangul)이 1443 년에 창제되었고 1446 년에 공식적으로 반포되었다. 한국어는 「자음+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본자음 17 개, 모음 11 개, 총 28 개로 이루어져 있다.(현재 사용하는 자모음은 총 24 개이다).

### 한국 문화와 한국어

#### (1) 한국어와 연령의 상관성

한국어와 한국인의 문화는 깊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서로 다른 대상에 따라 언어 표현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같은 인사법이라도 윗사람/ 동년배/ 아랫사람 등 서로 다른 대상에게 인사할 때 다른 언어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한국어에서는 엄격한 기준이 있으며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처음 만났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다.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러한 비교적 사적인 질문은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따라서 언어를 배울 때 그 나라의 문화와 예절의 중요성도 함께 중시해야 한다.

## (2) 한국인의 식사 예절

김 교수는 식문화 예절을 통해 한국인의 생활습관을 분석하였으며 다음 4 가지 습관은 한국인들이 식사 예절에서 매우 중시하는 것이다.

A: 윗사람이 먼저 수저를 든다. B: 수저를 오른쪽에 놓는다. C: 수저를 동시에 사용하지 않는다. D: 식사할 때 소리를 내지 않는다. 위의 4 가지 습관 외에도 식사 중에 채채기를 하지 않는다, 밥그릇을 들지 않는다 등이 있다. 한국인은 술을 마실 때에도 상대가 누구인가에 따라 계급 구분이 있다. 이러한 예절은 나라마다 식사 문화에 대한 표현이 다르며, 언어를 배울 때에는 동시에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해야 한다.

## (3) 한국 음식과 김치 문화

김 교수는 비빔밥은 일반 가정에서 자주 먹지 않는데 식당에서는 건강식으로 비빔밥을 많이 시킨다고 하였다. 한국의 「한정식」의 특색은 건강식을 주로 하여 다양한 채소 요리를 주로 한다. 비교적 특별한 점은 한국인은 생일날 미역국을 먹는데 한국인이 생일날 ‘미역국 먹었어요?’ 라고 질문할 때 외국인들은 어리둥절할 때도 있지만 한국 문화를 알고 있다면 미역국과 생일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한국 김치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는데, 원래 이름은 침채(沈菜)이다. 옛날 한국은 겨울철에 먹을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배추로 김치를 담가 밥과 함께 먹었다. 오래전부터 형성되어 온 김치는 지역에 따라 특색이 있다. 또한 한국 일반 가정에는 냉장고가 두 대씩 있는데 하나는 식자재용, 다른 하나는 김치전용이다. LG 전자는 1984 년 김치 냉장고를 출시하였으며 김치 냉장고는 지금까지 한국 가정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 학생 질문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한자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였다. 15 세기 한국도 중국의 한자를 사용해 일본과 한국 모두 한자어를 사용하였으며 일본은 지금까지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왜 현재 한자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떠한 영향이 있습니까?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지금은 한자를 사용하지 않지만, 사전을 찾아보면 대부분의 글자에 한자가 있다. 21 세기인 현재에도 한자 사용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였으며 김 교수는 개인적으로 한국어로 한자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한자는 중국어와 일본어 학습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웹사이트: <https://eurasia.pccu.edu.tw/index.php>)

번역: 이세희(李世曦) 한국어문학과 석사과정

감수: 김선효(金善孝) 한국어문학과 부교수